만언봉사 萬言封事

임금의 교지

왕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란 이(理)와 기(氣)•로 되어 있을 뿐이다. 이(理)는 현미(顯微)의 틈이 없고,• 기에는 흘러 통하는 원리가 있고, 인간의 일에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재앙과 상서로운 일이 제각기 그 유형별로 응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장차 흥성(興盛)하려고 할 때는 하늘이 상서로운 것으로써 깨우치고,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할 때는 요사스러운 징조로 경고하는데, 그래서 인간사회의 정치가 잘못되면 하늘에서 꾸지람을 보여준다.

- 이기(理氣) : 성리학에서 존재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먼저 이(理)는 사물이 그렇게 존재하거나 마땅히 그래야 하는 원리를 말하고, 기는 사물을 이루는 질료의 근원 또는 사물이 운동하는 실체이다. 그러나 사물이 그렇게 운동하게 하는 것은 이(理)이다. 따라서 세상은 이와 기로 되어있을 뿐이다. 여기서 하늘이란 오늘날 우주자연을 의미함.
- 이(理)는 … 없고 : 원문 현(顯)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작용의 측면, 미(微)는 드러나지 않는 본체의 측면으로, 이(理)는 작용과 본체의 어느 면에서도 다 있다는 말.

대개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간사한 사람에게 화를 내리는 것은 변함없는 천도(天道)•이다. 그것은 하늘이 임금을 어질게 사랑하고 나라를 화목하고 편안케 하기 때문이니, 상제(上帝)•께서 돌보아 주시는 뜻이 또한 지극하다.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서 임금이 된 자가 어찌 공경하고 부지런하고 두려워하고 힘써서 황천(皇天)•이 어질게 사랑하는 마음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원래 모자라고 우매하여 대도(大道)•를 잘 몰라서, 대저(代邸)•에서 조용히 죽을 때까지 살려고 하였다. 불행이도 외람되게 선왕(先王)•의 남긴 부탁을 받들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추대에 왕이 되었다. 본래 부귀한 사람이 하는 근심은 빈천한 사람이 누리는 편안함만 못하고, 말세를 다스리는 어려움은 힘들게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는 점은 알고 있었기에, 비록 왕의 자리를 사양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내가 어리석은 자질로 어렵고도 큰 대대로 물려준 나랏일을 지키니, 짊어진 짐은 이미 무겁고 시행하는 일이 모두 잘못되었다. 이

- 천도(天道) : 직역하면 '하늘의 길'로서 자연의 원리를 말한다. 성리학에서는 하늘을 다스리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원리로서 존중하였다.
- 상제(上帝) : 하느님. 중국 고대의 원시신앙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기서는 그런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관습적 차원에서 한 말.
- 황천(皇天) : 천(天)과 천신(天神)의 존칭으로 호천(昊天) 등과 같은 말. 주로 상제 앞에 붙이는 말.
- 대도(大道) : 사람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큰 도리.
- 대저(代邸) :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
- 선왕(先王) : 명종을 말함. 명종에게 왕통을 이을 세자가 죽고 없었으므로 방계인 선

에 나는 하늘과 백성에게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 두려워 떨며 깊은 연못가에 서 있거나 얇은 얼음판을 밟는 듯이 하였다. 이렇게 근심하고 애써 온 7년 동안 감히 안락하게 생활하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나라를 다스린 작은 효과도 내기 전에 여러 괴변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요성(妖星)*은 한해가 다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태백성(太白星)*은 대낮에도 나타나 거리낌 없이 반짝이며, 때 아니게 우레가 발생하고 지진(地震)이 일어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임금인 내가 덕을 닦는 일에 힘쓰지 않은 탓이니, 어찌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는가?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점차 깊어져, 세상이 뒤집히고 망하는 재앙이 없기를 바랐는데도, 하늘의 노여움은 꾸짖음을 더해 변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흰 무지개는 해를 관통했으니 요기(妖氣)*가 양기(陽氣)*를 핍박한 것이다. 태양은 여러 양기의 으뜸이고 임금의 상징인데, 마침내 사기(邪氣)*의 침범을 당했으니 놀라고 마음이 아파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사람이 하는 일에 잘못이 없는데 하늘의 꾸짖음이 어찌

조가 왕위를 이음.

- 요성(妖星) : 재해의 징조로 나타난다고 하는 별. 혜성이나 큰 유성을 말함. 여기서는 혜성을 가리킴.
- 태백성(太白星) : 금성.
- 요기(妖氣) : 요망하고 괴이한 기운.
- 양기(陽氣) : 따뜻하고 만물을 살리고 길러내는 기운을 상징함. 봄과 여름의 기운이 대표적인 양기임.
- 사기(邪氣) : 나쁜 또는 사악한 기운.

있단 말인가?

옛날 태무(太戊)*가 덕을 닦자 괴이한 뽕나무가 저절로 없어졌고, 경공(景公)*이 착한 말을 하니 형혹성(熒惑星)*이 물러갔다고 한다. 사람들의 바른 의논을 널리 받아들이면 이러한 재앙을 되돌려 상서로운 일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생각해보면 임금의 마음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근원인데,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임금의 마음에 바르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인가?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것은 앎에 이르는 일인데 배움에 진보가 없기 때문인가? 조정(朝廷)은 나라의 모범인데 실질적인 것은 없으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일 만들기만 좋아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인가? 백성들의 생업은 나라의 근본인데, 백성들이 곤궁하고 또 그들을 막고 억누르는 참상이 있기 때문인가? 현명한 자와 사악한 자가 뒤섞여 관직에 진출했는데, 혹시라도 임금이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가? 정권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여지가 있어 혹시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기 때문인가? 언로(言路)*가 열리지 않아서 임금의 눈과 귀가 아직도 막혀 있기 때문인가? 초야(草野)에 숨어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아직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수

- 태무(太戊) : 고대 상(商)나라를 부흥시킨 제7대 임금 중종(中宗). 뜰에 난 뽕나무와 닥나무가 하루아침에 많이 자라는 이변이 일어나자, 덕을 닦으라는 신하의 말에 따르니 두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함.
- 경공(景公) : 춘추말기 송(宋)나라 군주.
- 형혹성(熒惑星) : 화성. 옛날 화성이 특정 별자리에 접근하면 재앙이 일어난다고 믿었다.

많은 관리들이 죽은 듯이 놀고 있어 많은 일이 망가졌기 때문인가? 옥사(獄事)*가 지체되어 백성의 원망이 많기 때문인가? 사치와 신분에 어긋난 일들이 아직도 왕성한데 어떻게 그것을 고칠 것인가? 인심은 날로 악화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교화(敎化)*할 것인가? 도적은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치게 할 것인가? 군정(軍政)*이 엄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것을 손질할 것인가?

대체로 이 몇 가지가 모두 재앙을 초래했으니, 어떻게 하면 백성이 부유하고 인구가 늘어나며, 정치와 교화가 모두 잘되어 역대 선왕(先王)들의 융성했던 다스림을 회복하고, 성대했던 요순(堯舜) 시대를 뒤따라 그 공로가 역사책에 기록되어 후세의 모범이 되게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

아! 우러러 천문(天文)을 관찰하고 굽어 인간의 일을 살펴보니 내가 훌륭한 임금이 되지 못해, 끝내 나라가 위태롭고 혼란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구하는 뜻을 여러 번 내렸으나 소장(疏章)*을 올렸다는 말이 듣지 못했다. 이 어찌 나의 말에 거짓이 있고 좋은 의견을 구하고자 데 성의가 부족하여, 신하들에게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며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직

- 언로(言路) : 신하들이 임금께 말을 올릴 수 있는 길.
- 옥사(獄事) : 형사재판과 관련된 일. 민사재판과 관련된 일은 송사(訟事)라 부름.
- 교화(敎化) : 가르쳐서 바른 곳으로 인도함.
- 군정(軍政) : 군사행정인 군적과 군사재정의 근원인 군포에 관한 일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
- 소장(疏章) : 상소하는 글.

접 수교(手敎)•를 내려 목마르게 의견을 듣고자 바라니, 위로는 조정 대신들로부터 아래로는 초야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극언(極言)•이라도 숨기지 말라.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주지는 않겠다. 그대들 정사(政事)를 담당한 관청에서는 나의 지극한 속마음을 헤아려 조정의 안팎에 널리 알려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

• 수교(手敎) : 임금이 손수 써서 발표하거나 알리는 글.
• 극언(極言) : 심한 말. 있는 말을 다하는 것.

해설

선조 임금의 이 교서는 율곡이 만언봉사를 올린 계기가 된 글이다. 우선 이 교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다음의 율곡의 상소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 교서를 실었다.

이 교서는 선조 7년(1574) 1월 4일에 내린 것인데, 크고 작은 자연의 이변과 특히 며칠 전 당시 서울에서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이 너무 멀어 무지개가 결코 태양을 관통할 수 없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흰 무지개가 태양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원래 흰 무지개는 태양이 안개를 비출 때 나타나는데, 안개의 물방울이 아주 작기 때문에 색채가 겹쳐져서 희게 보인다. 이것을 평상시와 달리 이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순한 자연현상을 어째서 인간의 일과 연관시켜 재앙이나 이변의 징조라고 여겼을까? 여기에는 역사적이고도 철학적인 배경이 있다. 전국시대 순자(荀子)는 자연의 일과 인간의 일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지만, 한나라 때 동중서(董仲舒)는 자연재해와 이변이 인간의 일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천인상감(天人相感)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하늘의 뜻을 위반하면 하늘은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를 내려서 경고하는데, 그래도 군주가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일 · 월식이나 혜성 등의 이변을 내려서 놀라 고치게 하고,

그랬는데도 뉘우쳐 고치지 않으면 하늘은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한다. 그 원리는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하면 원망하는 백성들의 기가 하늘에 올라가 음양(陰陽)의 기운 변화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이론을 재이(災異)설이라 부른다.

동중서가 의도한 것은 군주의 횡포를 막을 길이 그런 식의 설명 말고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후로 자연과 인간의 일이 무관하다는 순자의 이론보다 동중서의 이론을 따라 이런 흰 무지개나 큰 유성과 혜성의 출현, 특정한 별의 이동, 일식과 월식, 홍수와 가뭄 등의 변고와 이변이 생기면 군주는 반성하고 삼가서 좋은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전통이 생겼다. 원래는 동중서가 이런 학설을 만들 때는 재앙이나 이변이 군주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일로 여겼으나, 훗날 그의 후학들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일까지도 포함시켰다. 곧 재앙은 군주의 과거의 일 때문에, 이변은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 혜성과 큰 유성의 등장, 특정한 별자리의 이동 등의 기이한 일이 출현하면 국왕이나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서, 임금이 삼가고 근신하며 그 재앙이 비켜 지나가기를 희망했다.

그렇다면 왕은 또 이 재이설을 왜 믿었을까?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상이 있는데,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된다는 천명사상(天命思想) 때문이다. 선조의 교지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 바와 같이 천명을 받은 자가 왕이 되므로 하늘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이를 당연히 하늘의 뜻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것을 부정하면 천명도 부정해야 하므로 왕권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선조가 교서를 내렸다. 사실 이런 이변이 등장했는데도 임금이 어떤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는 자발적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의례나 관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도 신하들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선조는 이 교서를 직접 작성하여 내렸다. 이런 종류의 교서는 '구언교서(求言敎書)'로 곧 임금이 나라 안팎의 좋은 말을 구한다는 의미의 글이다. 그래서 임금이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점을 나열했는데 모두 열 네 가지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맨 서두에서 마치 하늘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처럼 착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며 임금을 깨우치는 등 인격적인 의지를 갖고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잘 아는 『명심보감』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교처럼 어떤 특별한 신학적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사실 이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비록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하늘에 대한 원시 신앙을 흔적을 유지하고 있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신학을 바탕으로 종교로 발전했기보다는 유교는 이것을 오히려 내면의 도덕적 수양으로 발전시켰다. 더구나 조선은 남송 때 주자(朱子)가 완성한 성리학(性理學)의 이념으로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리학의 전통에 따라 식자층인 선비들은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근거로서

철학적 관점에서 하늘을 규정한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여기서 누가 원시 신앙적으로 자연을 바라보더라도 도덕적인 하늘의 원리나 이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후대의 성리학이 고대문헌에 보이는 이런 원시 종교적 태도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적 자연관이든 신앙적 자연관에서 보든 누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맞고 죽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벼락 맞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앞의 순자의 견해처럼 드물게 벼락과 그 사람의 도덕적 행위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무튼 선조가 이런 교서를 내린 것은 인간의 일 곧 군주의 일과 자연의 일이 관계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율곡 또한 23세 때 치른 과거시험의 답안인 「천도책(天道策)」에서 이런 천인상감의 재이설에 확신을 갖고 그것을 작성했다. 자연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근대적 자연관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國家將興, 必有禎祥以曉之, 國家將亡, 必
국가장흥 필유정상이효지 국가장망 필

有妖孼以告之, 政失於下, 謫見於上. 蓋福
유요얼이고지 정실어하 적현어상 개복

善禍淫, 天道之常, 而莫非所以仁愛人君, 輯
선화음 천도지상 이막비소이인애인군 집

寧邦家, 上帝眷顧, 意亦至哉. 其有以受天
녕방가 상제권고 의역지재 기유이수천

明命而爲人君上者, 奈何不敬勤惕勵, 以答皇天
명명이위인군상자 내하불경근척려 이답황천

仁愛之心乎.
인애지심호

將興: 장차 흥하려고 하다/必有: 반드시 있다/禎祥: 상서로운 조짐, 길조/以: ~으로써/曉之: 그것을 깨우치다/將亡: 장차 망하려고 하다/妖孼: 요사스런 재앙의 징조/告之: 그것을 알리다/失: 잃다, 잘못하다/於上, 於下: 위에서, 아래에서/謫見: 꾸지람을 보여주다/福善禍淫: 선한 자에게 복주고 간사한 자에게 화를 내림/天道: 하늘의 도리/常: 변함없음, 항상/ 莫非: ~아님이 없다/所以: 그것으로 ~하는 것/仁愛: 어질게 사랑함/輯寧: 화목하고 편안함/邦家: 국가/上帝: 하느님/眷顧: 돌보고 돌아보다/至: 지극하다/受天明命: 하늘의 밝은 명을 받다, 곧 임금이 되다의 뜻/奈何: 어찌/敬勤: 공경하고 부지런하다/惕勵: 두려워하고 힘쓰다/答: 보답하다, 답하다/皇天: 하늘을 높인 말/乎: 어조사

해석

국가가 장차 흥성(興盛)하려고 할 때는 하늘이 상서로운 것으로써 깨우치고,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할 때는 요사스러운 징조로 경

고하는데, 인간사회의 정치가 잘못되면 하늘에서 꾸지람을 보여준다. 대개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간사한 사람에게 화를 내리는 것은 변함없는 천도(天道)로, 그것은 하늘이 임금을 어질게 사랑하고 나라를 화목하고 편안케 하기 때문이니, 상제(上帝)께서 돌보아주시는 뜻이 또한 지극하다.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서 임금이 된 자가 어찌 공경하고 부지런하고 두려워하고 힘써서 황천(皇天)이 어질게 사랑하는 마음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君心, 出治之源, 而心有所未正歟. 講學,
군심 출치지원 이심유소미정여 강학

致知之務, 而學有所不進歟. 朝廷, 四方之則,
치지지무 이학유소부진여 조정 사방지칙

有虛僞喜事之風歟.
유허위희사지풍여

君心: 임금의 마음/出治: 정치와 같은 말/之: 소유를 나타내는 어조사/源: 근원/所: ~것/未正: 바르지 못함/歟: 문장 뒤에 붙어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講學: 학문을 강론하고 연구함/進: 나아가다/四方之則: 나라의 모범. 사방은 온 나라를 뜻함/虛僞: 꾸며낸 거짓/喜事: 일 만들기를 좋아함/風: 풍조

해석

임금의 마음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근원인데,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임금의 마음에 바르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인가?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것은 앎에 이르는 일인데 배움에 진보가 없기 때문인가? 조정(朝廷)은 나라의 모범인데 거짓과 위선으로 일 만들기만 좋아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인가?